

# ‘다함께 행복한’ 광주, 영유아 보육공동체 실현한다

### 아이·부모·교사 모두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방인구 소멸 대응 보육 공공성 강화·안심보육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46개 과제 시행

광주시가 아이·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나선다. 지방인구 소멸시대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공동체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함께 행복한 보육공동체 광주 실현'을 위한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아이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부모는 믿고 맡기며, 보육교직원의 자긍심을 높여 다함께 행복한 보육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제고, 안심 보육환경 조성, 수요자 맞춤 보육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등 4대 시행분야에 걸쳐 46개의 과제를 세웠다.

공공보육 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17곳을 늘려 총 159곳인 광주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을 164개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우수 보육 인프라 어린이집인 공공형 어린이집 95곳을 선정해 운영을 지원(운영비지원 37억 원, 환경개선비 지원 7500만원)한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해 교재교구비, 도서구입비, 차량운영비 및 인건비, 기능 보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는 차량운영비(기사인건비, 유류비 등)를 지급하고,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한다.

추가로 신청제였던 어린이집 평가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늘려 등급평가를 진행한다.

안심보육환경 조성으로 부모와 영유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 아동 및 보육 교직원의 안전공제회 가입비를 지원한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거나 A·B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시설에는 방·난방비 5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응급처치, 개인정보보호, 인권교육고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추가로 통학차량 안전장치 점검 및 미세먼지 대응 행동 매뉴얼도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또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안심보육비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기본현황, 보육과정, 예·결산, 건강·안전 등을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시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확보한다.

보육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보육 수요자인 부모의

선택권을 늘린다.

3~5세반 보육료지원 단가는 유지하지만 0~2세반 보육료를 지난해 대비 5%인상한다.

부모의 경제활동 등에 따라 어린이집이용 또는 가정양육 중 선택지원을 한다.

0세의 영유아 부모의 경우 시설 미이용시에는 월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시설 이용시에는 월 54만원의 바우처와 현금 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세의 경우 시설 미이용시 월 50만원의 현금지원과 시설을 이용 시 월 47만5000원의 바우처와 현금 2만 5000원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정양육 중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 필요 시 시간 단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보육사업도 지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6개월~2세 영유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지정된 기관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보육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역량강화에도 힘쓴다. 보육교사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 등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보육교사 고충상담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상담전문요원도 배치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통사찰과 함께 정화활동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국립공원의 날(3월3일)을 기념해 전통사찰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엄사와 천은사, 구례군, 자원봉사자 등 120여명이 합동으로 화엄계곡 쓰레기 줍기 등 정화활동에 참여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제공>

## 계획부터 실행까지... 청소년 주도 '배움' 이끈다

###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2024 상반기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배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등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기관연계형과 자율기획형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총 9개 과정이 운영된다. 청소년들은 이중 원하

는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기관연계형 '가가지기 프로젝트'에서는 전남대, 독립출판작가 등 대학 및 전문가와 연계해 건축공간, 정원조성, 소설창작, 베이킹, 패션, 역사콘텐츠, 영화비평, 미디어아트 총 8개 분야다.

자율기획형 '제멋대로 프로젝트'는 관심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뒤 실천해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스로 원하는 주제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으며 그간 '행복 탐

구', '공부란 무엇인가?', '장애인을 위한 발명품 제작' 등 다양한 주제로 이뤄졌다.

기관연계형은 이달 19일, 자율기획형은 26일까지 신청이 마감되며 온라인 접수 후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제멋대로 프로젝트' 과정에 참여한 미효진(19)양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스스로 해야 해서 부담도 컸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꼈다"며 "기획력과 진행력, 협동력, 소통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적성과 흥미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15~37세로 확대 운영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연령요건 완화...생계·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광주·전남 취업준비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확대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의 연령요건을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구직 촉진수당 월 50만원과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을 6개월간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취업알선,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등)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기존에는 18~34세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하한을 15세로 낮췄다. 또 기존 34세였던 상한도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최대 37세까지 신청가능하게 변경됐다.

또 그동안 참여자(1유형 수급자)가 일정수준(최저임금×60시간)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했으나 소득발생금액에 따라 감액 지급토록 변경해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자립준비청년·저소득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며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 생계비 대출 등으로 금융에 취약한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경우 취업과 생계비 대부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센터와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곤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우리 지역 자립준비청년, 저소득구직자, 금융취약계층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더 많이 참여해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삶의 보람과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다움 통합돌봄, 그 뜨거운 실천일기

### 광주시, 97개 동행정복지센터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

#. 광주시 동구 지원3동에 거주하는 A씨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당노와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서울에 있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쳐 놀라왔다.

#. 돌봄서비스를 통해 쓰레기와 소변으로 엉망인 이불, 바퀴벌레가 가득했던 집이 깨끗해지고 목욕서비스로 본인의 몸도 깨끗해진 광주시 남구 봉선1동의 한 시민이 "이제 살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 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의 자살위기에 최고조였던 대상자는 통합돌봄 가사지원을 통해 우울증이 감소했다. 자살위기 최고조였던 대상자는 살도 찌고, 말 더듬는 현상도 현저히 줄어들었던 대상자는 "보성복지마을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광주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실행의 중심 역할을 했던 담당 공무원의 돌봄 지원사례 모음집이 나왔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1일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현장에서 실행한 동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의 우수사례 모음집 '우리가 좀 바랬습니다'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97개 동행정복지센터 전체가 참여해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실천사례와 지난해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이



대로 죽을 것 같다에서 이제 좀 살 것 같다'로 등 100여 사례가 담겼다.

광주다움통합돌봄, 그 뜨거운 실천 일기에는 '퇴원후 목욕 한 번을 못했는데 너무 좋네요', '아무도 와주지 않았는데 너무 고마워요', '병원을 같이 가주는 서비스도 있었어요?', '고맙소, 집도 치워주고 말소대도 해주니', '가족들 모두 간병으로 너무 힘들어요'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담당했던 동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들의 실제 사례가 수록됐다.

또 광주다움 통합돌봄 소개,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을 소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걸어온 길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발간된 사례집을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사례관리 담당공무원의 업무 이해를 돕고, 시민 누구나 읽어 볼 수 있도록 광주복지플랫폼 복지정보·복지자료실에도 게시했다.

한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2만3249건의 현장을 방문해 8891명에게 1만8641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